

데스크 시각



김미은
여론매체부장·편집국 부국장

“우리 광주시향에 객원으로 자주 참여하신 연주자입니다.”

지난 2월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향 연주 현장. 흥석원 상임지휘자가 트럼펫 연주자를 소개할 때 유독 ‘우리’라는 말이 마음에 닿았다. 아마도 며칠 전, 그가 오는 7월 부산시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뉴스를 접해서였을 것이다. 그의 부산행(行)을 두고 클래식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사람과 광주 사람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시향은 흥지휘자 부임 후 ‘전국구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했다. 서울 교향악축제의 오프닝을 장식하고 통영국제음악제 초청 공연에도 참여했다. 클래식 FM에서는 광주시향과 그의 이름이 수시로 흘러나오고 광주 공연은 언제나 만석이였다. 물론 운도 따랐다. 피아니스트 임우찬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하기 전 계약을 맺고 그와 베토벤의 ‘황제’를 녹음해 음반으로 냈다.

‘사람 키우기’ 인색한 도시

지휘자가 커리어 관리 등을 위해 자리를 옮기는 일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하지만 해외파였던 그에게 광주시향은 첫 부임지였던데다,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과 전국적 명성 등 성과도 컸기에 계약을 지속해 광주시향을 확고한 위치에 올려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실력과 운이 함께 어우러진 ‘질호의 찬스’는 좀처럼 오지 않기 때문이다. 뚜렷한 성과를 낸 유능한 인재를 잡기 위해서는 때론 파격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은편칼럼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주로 내가 하고 있다. 종이류와 플라스틱류로 나뉜 것들 들고 분리수거장에 가는데 그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든다. 환관 입구에 쌓여있던 것을 탈탈 털고 돌아서면 아주 개운한 느낌이다. 그러면서도 분리수거장 옆에 산갈이 쌓여있는 비닐과 플라스틱 더미를 보면 어떤 위기감이 짓누른다. 비록 내 집은 치워서 깨끗해졌지만 그것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재활용이든, 미세 플라스틱으로 떠돌든, 땅에 묻혀 훗날 나오든, 우리 곁에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특단의 조치나 더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단체나 선진적 환경운동가들이 활동해온 결과로 문제의식 자체는 모두가 공유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실천과 국가의 정책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 생활의 불편함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번복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후 위기의 상징적인 사례로 북극의 녹아내린 빙하와 북극곰이 많이 등장했는데 북극곰이나 남극 펭귄도 위기가지만 인간도 사방천지 어디에 살든 위

기고



임채석
광주시교육청 사무관·행정학박사

순무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란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뜻이다. 나를 찾고 나를 아는 것, 자기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 역할은 무엇인지, 그것에 충실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단순함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단순함으로 본질을 봐야 한다. 단순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짐을 털어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단순해지면 속도가 빨라진다. 복잡한 세상의 답은 오히려 단순함에 있다. 조직 생활에서도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파헤쳐 문제를 단순화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힘은 원인이거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단순

광주에는 인물이 없나요?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두고 설왕설래다. 적임자가 없어 3차 공모가 진행중인데, 최근 임명된 광주 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문화와는 동떨어져 대표이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산하 기관장 인사에서 매년 등장하는게 내정설이다. 재단 역시 오래 전부터 특정 공무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특정인의 내정설도 흘러나왔다. 단체장이 확고한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선거 전리품처럼 사용하는 건 자승자박이다. 지금도 공공연히 ‘선거 몫’으로 자리를 차지했던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텐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는 인물이 눈에 띈다. 능력자들의 등장을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한 지역 발전은 없다.

지난 공모 당시 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A씨에 대한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 행동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결국 ‘내편 내편’ 따지는 꼴이라 실망스러웠다. 어쩌면 광주에서 ‘평판 조화’를 통과시키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지 모른다.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정치권도 비슷하다. 어제까지 광주지역 민주당 공천 결과 8개 지역구 가운데 현역의원이 공천된 곳은 광산을 단 한 곳 뿐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실망이 빚어낸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고, 신진 세력의 등장을 반길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살아 남은 의원이나 정지 신인들이 현역보다 모두 인물 경쟁력이 뛰어나고, 자력으로 공천을 따낸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재선 자치단체장이 한 번에 그친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매년 기대를 갖고 뽑았던 현직 시장들이 그렇게도 시장을 잘못 운영했던 것일까. 광주 시민들의 검증 잣대가 유난히 엄격한 것일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일부에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도 나오는 걸 보면 바꾸는 게 꼭 능사만은 아닌 모양이다.

광주처럼 인물 키우기에 인색한 도시가 없다. 외지인들은 아쉬움을 안고 떠나고, 내부인들은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살아남는다. 때론 왜곡된 잣대를 들이미는데 속수무책일 때도 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평가할 것은 평가하며 견제와 지지로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관행은 깨고, 선례는 만들고

부산시는 스타 발레리나 김주원을 2026년 개관하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으로 벌써 선임했다. 반면 광주시는 임기 만료가 코앞에 닥쳐서야 예술감독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출중한 성과를 냈던 흥지휘자도 임기 만료가 임박해서야 재위촉 통지를 받았다. 광주시는 관행이라고 했다.

“관행이다. 선례가 없다.” 관에서 영무사처럼 읍어대는 말이다.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선례는 만들면 된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인물이 나타난다. 유례없이 5개월 전 지휘자의 이직이 결정된 광주시향이 선임 지휘자 찾기를 통해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보길 바란다.

얼마전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 지역 DJ들이 광주지하철에서 디제잉 파티를 여는 기획이었다. 코레일 열차 공연도 꿈이라고 했다. 비행기에서 선우정아 콘서트를 열었던 광주 지역 ‘에어로 케이’ 사례가 흥미로웠던 터라 신박한 기획에 박수를 쳤다. 디제잉 파티가 열리는 지하철과 K팝 거리 투어,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짜도 좋지 않을까.

‘인서울’의 유혹을 물리치고 지역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지역 대표 선수로 키워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 역시 관행을 깨고 선례를 만들어야 가능한 일일 테지만 말이다.

환경 현장교육 산실, 평두메·장록 습지

기에 놓여있다. 뉴스를 보면 기록적이란 말이 간혹 나온다. 주로 기상이변을 전하면서 날씨에 관한 기사 중에 ‘최고, 최저, 관측 이래~’란 접두어와 함께 등장한다. 이러한 말 다음에 나올 단어는 ‘비극’, ‘처참’이 아닐까? 지난해 전반기는 극심한 가뭄이었다. 한 방울의 물도 아끼자고 관공서는 학교든 간절한 공고문이 붙었는데, 이 공고문이 채 제거되지도 않은 채 후반기는 물벼락으로 온 나라가 난리났다.

나는 ‘람사르습지(Ramsar濕地)’란 말을 좋아한다. 발음도 사르르하고, 묵어서 평안한 땅이란 느낌이 든다. 자료를 보면 람사르는 이란의 도시 이름인데 지난 1971년 이곳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맺게 되어 ‘람사르 협약’이라 하고, 이 협약에 따라 등록된 습지를 람사르습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01번째로 가입했으며, 경남 창녕군의 우포늪이 대표적이고 전남은 순천만·보성갯벌 등 5곳이 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무등산 자락의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즉시 북구 화암동 530번지 평두메를 찾아갔다. 평두메습지는 약 7천여 평으로 북방산개구리의 최대 서식지이다. 마침 개구리 산란 소리가 온 계곡에 가득했다. 참 오랜만에 들었던 천연의 생태소리였다. 물오리도 습지같은 동작으로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원래 이곳에 계곡의 다락논이었는데 수십 년 전 농사를 짓지 않아 자연스럽게 묵어서 습지가 된 것이다. 수달과 삼 등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과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는 서식지이다. 그런데 설렘만큼 실망도 컸다. 몇 년 전 집중호우로 물결이 생기고 토사가 밀려들어서 원형을 복원한다고 수입산 야자수 매트로 독을 만들어 놓았다. 습지와 바로 잇대어있는 땅에는 임대한 주민이 밭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밭대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백 개의 작은 전구를 밭 둘레에 달아 놓았다. 또 바로 지근거리에는 대 여섯 마리 큰 개를 키우는 곳이 있었는데 인위적 평두메가 찢어지도록 짖어댔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찾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살고 있던 희귀종도 내몰 것 같았다.

사유지도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보존을 위해 여러 행정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2020년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개인적인 관심도 있었지만 지난 3월 1일 개원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는 시민협치기후환경과가 있어서 더욱 그랬다. 학교 교육과정에도 환경교육이 확대 정착되고,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산구 황룡강에 자리한 장록습지를 보전하고, 교육현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계속 협의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은 무등산 평두메습지에서 출발하여 도심의 광주천을 살피고, 영산강과 황룡강의 장록습지까지 현장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취미가 아니라 의무이다. 올해는 170여 명의 생태전환 시민강사단과 함께 5개 습지학교도 운영한다.

본질 찾기 왜 중요한가

하게 보는 힘은 본질을 보는 힘이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우리는 왜 모순을 찾고 본질 찾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걸까? 지금의 현대 정보화 사회는 구조가 복잡 다양하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이 쉽다. 본질은 투명하기 때문에 모순을 알면 잘못된 방향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본질에 더 접근할 수 있다. 본질에 접근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다. 그러나 본질은 문제나 현상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매우 간단 명료하다. 본질을 충실하려면 몰입하고 집중해야 한다.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차별화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넣느냐에 따라 본질의 밀도는 달라진다. 조직의 성과를 내고 본질을 파악하려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이 필요하다.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없애야 한다.

본질 찾기의 시작은 왜, 궁금증이나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질은 나침반처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판단하면 속도와 방향을 정할 수 없다. 조직 생활에서

도 어떤 역할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본연의 일과 부차적인 일, 본질적인 면과 지엽적인 면 사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 본질은 출발점이고 결과에 작용하는 변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성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교육 갈등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 복잡한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필요하다. 교육은 왜 본질에 가깝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다른 다양한 활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취지나 본질적 목적이 상실되면, 그 활동은 비본질적 목적이거나 모양으로 변형되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은 그 본질에 가깝게 수행될 때 비로소 교육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멀리 보고 넓게 봐야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본질을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속한 환경이 다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면 당연히 전략을 세우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본질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광주시교육청의 ‘다시, 교육의 본질로’ 정책 추진은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는 의미에서 교육 본질 찾기가 왜 중요한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社說

무인점포 전성시대, 디지털 소외층 배려 절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된 무인점포가 늘면서 대표적인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은 웬만한 편의점이나 카페를 가더라도 입구는 물론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무인 편의점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내부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그제 방문한 유스퀘어 광주 종합터미널의 경우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려면 노인들이 들어가지 못해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고 매표소도 무인발권기로 전부 대체돼 안내 직원의 도움 없이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렇다보니 아홉 대의 무인발권기 가운데 직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기 한 대에만 노인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카페나 음식점에도 키오스크가 입구는 물론 테이블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음식점 비율은 6.1%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무인점포는 고물가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매출이 줄어들어 정작 사업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세계적인 추세라 무인점포 증가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무인점포 전성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노인들 스스로 디지털기기에 친숙해지려는 노력이 우선이었지만 사회 원에서 디지털 문명 퇴치를 위한 교육을 하는 발권을 할 수 없었다. 이렇다보니 아홉 대의 무인발권기 가운데 직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기 한 대에만 노인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카페나 음식점에도 키오스크가 입구는 물론 테이블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보의 차출, 농어촌 의료 공백 어찌나

정부가 그제 전남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 23명을 차출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7명)과 아산병원(7명), 화산 전남대병원(6명) 등 도시 지역 병원에 파견했다. 혼자서 근무하던 전남 19개 보건지소 공보의도 차출돼 해당 지역은 4월 11일까지 ‘개점휴업’ 상태에 처하게 됐다.

앞서 전남도는 “공공의료에 취약한 전남지역 공보의들이 타 지역과 상급병원으로 파견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전남도는 공보의 공석이 된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인근 사·군 보건소에 순회 진료를 요청하고, 전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에 보건지소의 비대면 원격진료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취약한 농·어촌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전남 19개 지역 의료기관이 ‘핑크’났다. 이

번 조치는 정부의 다급한 입장이 인정할 지라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 2000여 명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랫돌 빼서윗돌을 끼는 임시변통에 불과하고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해당 지역 보건지소 운영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은 한 달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인근 사·군 보건소의 순회 진료 또한 땀 흘린 처방에 불과하다. 이윤 위해 우려되는 심각한 농·어촌 의료공백은 어찌할 것인가.

공보의는 병역의무대신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의 버팀목이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의료여건이 열악한 전남에 배치된 공보의의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의 공보의 차출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지양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법적 처분만을 앞세우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와 대화·협의를 통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無等鼓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진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이른바 ‘이대남’ (20대 남성)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의 신조어가 유행했다. 이번 총선에서 단연 눈에 띄는 신조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평가한 ‘비명횡사, 친명횡재’다. 이는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공천권을 거머쥐는 것에 비해,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무더기 탈락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생긴 말이다.

선거 때만 정당의 ‘공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친명횡재’

공천권을 따내지 못했다. 감소 탓에 민심·당심과 이반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일부 비명계 인사들은 아예 경선도 해보지 못하고 ‘컷오프’ 되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반면 친명계 현역 의원 대다수는 단수 공천을, 일부 친명계 원외 인사들은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감산 페널티’ 덕에 본선에 올랐다.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횡사’한 현역 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횡재’한 인사들은 앞으로 당 대표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챙기는 소신있는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주요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행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